

# 與 혁신위 “중진 총선 불출마·힘지출마, 6호 혁신안 의결”

인요한 “이달 4일까지 답 기다릴 것”  
조기해산엔 “당 대응 보고 결정”  
공관위원장 자리에 추천 요구  
김기현 “적절하지 않아” 거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30일 앞서 권고했던 ‘당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총선 불출마 또는 힘지출마’ (희생)를 6호 혁신안건으로 정식 채택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달 4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11차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다”며 “최고 위원회의에서 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초 권고안으로 내놔던 지도부·중진·친윤계의 희생을 공식 혁신안건으로 채택해 최고위에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공식 안건 채택을 통해 당 지도부 및 당사자들의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풀이된다. 지난 3일 내놔던 희생 권고안은 최고위에 정식 보고된 바 없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당에 책임있는 분들에게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100점 아니면 0점이다. 70점, 80점짜리 혁신은 없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다. 저희 위원들도 같은 마음이고 사실 참담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혁신위 안건 세부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당에 책임있는 분들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며 “이런 국민의 뜻을 엄중히 생각하고 당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인 위원장은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달 꾸려질 공천관리위원장 자리에 자신을 추천했다. 그는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해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구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오직 당과 나라를 위해 국민의 뜻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끝까지 집

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혁신위 활동에 늘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고 계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위에 전권을 주시겠다고 공언했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하길 바란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혁신위가 제안한 2~5호 안건은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였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통해 보고받았지만 혁신위 활동이 끝나는 시기를 전후해 최종 의결하고, 공관위 등을 통해 구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혁신위 제안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인 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당의 조치가 미흡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인 위원장이 혁신위원 12명에게 혁신안 발표 직전 먼저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또 오 혁신위원은 이 같은 최후통첩

에 대해 “당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다. 최고위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설명했다.

6호 혁신안과 공관위원장직 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면서도 “당의 대응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혁신위 내 내용이 어느 정도 봉합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부 소동이 있었지만 인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위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 요구에 관한 질의에 “그간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이재명, 총선 힘지출마로 ‘故 노무현의 길’ 택할까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대표 성공사례  
지역주의 타파·희생정신으로  
낙선에도 전국구 스타 정치인 돼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힘지출마 의사를 밝히는 후보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직전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지출마로 희생하며 ‘노무현의 길’을 택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자신이 닦아놓은 기반을 포기하고 힘지에 출마하며 정치적 입지를 몇 단계 이상 상승시킨다.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 출마하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텃밭인 대구·경북에 출마하는 식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광역시 12개 지역구에서 11개가 미래통합당(국

민의힘 전신)으로, 1개 지역구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현 대구시장(당시 무소속 출마)이 가져갔고, 전라남도 10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싹쓸이 한 것처럼, 힘지출마는 후보가 스스로 사형장에 들어가는 꼴과 같다.

한국 정치사에서 힘지출마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사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1998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 전 대통령은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당선되기 힘든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로 삼아 끝내 낙선한다.

당선을 위한 득실관계 계산보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과 정치인 스스로의 희생정신에 낙선했음에도 그는 전국구 스타 정치인이 됐고 그의 대선 승

리 원동력이 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가 결성되기도 했다.

군포에서 3선을 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 수성갑에 내려가 당선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힘지출마의 좋은 사례다.

힘지출마는 중량감 있는 후보가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선거 출마자 45세 이하 후보 총 28명 대부분을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힘지에 출마시켜 ‘큰대 정치’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에게 힘지출마를 바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입지가 탄탄한 대표 정치인인 이 대표가 ‘희생 정신’을 보여줘야 당 내 갈등을 불식시키고 총선에서 민심의 바람을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인천 계양을에서 비교적 손쉽게 당선됐다. 이 대표가 도전할 만한 지역구로 거론되는 곳은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성남에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분당갑이나 출생지인 경북 안동·예천이 꼽힌다.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3선을 한 서울 중구·성동갑을 포기하고 수도권 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경북에 도전해 총선을 지휘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비이재명계는 ‘사법리스크’로 주3회 재판을 받으면서 당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느냐며 이 대표의 힘지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국민의힘, 엑스포 부산유치 불발 후폭풍 차단 총력

김기현, 빠른 시일 내 부산 방문

국민의힘이 30일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후폭풍 차단에 힘을 쏟았다. 빠른 시일 내 김기현 대표가 부산을 방문키로 했으며,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스윙 스테이트’(경합지역)로 떠오른 부산의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부산지역 국회의원 현안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 대표 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함께했다.

이들은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김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역내 현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이 느꼈을 수 있는 상실감을 가장 걱정했고, 부산시민들이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당에서 최

대한 지원하기로 했다”며 “가덕도 신공항 문제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도 당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엑스포 관련 현안도 일정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전봉민 의원은 “빠른 시일 내 김 대표가 직접 부산에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점검해주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2030 엑스포 유치에 비록 실패했지만, 정부와 민간,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낸 원팀의 하모니는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게실 부산시민들을 위로하고 부산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산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했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북항 1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는 물론이고, 2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와 3단계 친수공간 및 신도심 개발 계획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다짐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반드시 연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민주당 설득에 더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승의원(부산부산진)은 “엑스포 유치가 힘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만큼 국토부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 북항 등 현안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부산을 세계적 명성에 걸맞는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